

불신자상태 6가지와 하나님의 완전치유

-복음으로 여는 미가-

미가 5:2, 마태복음 2:4-6

정윤돈 목사님

* **미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 **마2:4-6**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자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약속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절대불가능한 영육 간의 문제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축복과 응답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천명과 소명과 사명,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특별히 나의 현장과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끝 속에서 혹시 지난 한 주간도 변민하고 갈등하며 문제 속에서 고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나에게만 주시는 이면계약과 성취될 언약의 레미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종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론

오늘 성경 본문인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아주 유명하고도 중요한 요절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다. 동방박사들은 특별한 별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까지 왔고,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분봉 왕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 헤롯은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 능력을 크게 인정받아 팔레스타인지역 전체를 통솔하는 막강한 정권을 위임받은 인물로, 대왕이라 칭할 만큼 권력이 컸다. 그렇게 어렵게 쟁취한 권력인데,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나타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헤롯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불안해진 헤롯 대왕은 즉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다. 그때 이 종교지도자들이 성경을 뒤져 찾아낸 구절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목자가 태어난다”고 기록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 이 예언을 찾아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과연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아니다. 그들은 결코 영접하지 않았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째로 외울 만큼 엄청난 성경지식을 자랑하는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지만 그 지식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복음의 생명이 없는 성경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정작 내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을 철저히 불신하고 세상방법을 택한다면 그것은 컵을 뒤집어 놓아 생수를 전혀 담을 수 없는 상태와 같다. 실제로 대표기도를 할 때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이라며 아주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내뿜으며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예수님을 꺾박한 헤롯 대왕도 겉으로는 애독 축복 출신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종교인이었다.

인간은 내면에 사탄의 역사와 창세기 3장의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떤 악행을 저지르지 모른다. 그 끔찍한 죄인이 남아 아니라 바로 ‘나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내신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행사가 아니라, 내 안의 끔찍한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는 엄청난 축복의 영적 현장이다. 이 불신자상태의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사탄과 흑암세력은 지금도 권력, 정치, 자리, 이익이라는 미끼를 통해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려 한다. 헤롯 대왕과 종교지도자들 역시 권력과 탐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철저히 버렸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역시 그토록 포악하고 잔인하며 불법적인 악행이 사회에 만연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홀로코스트 같은 끔찍한 역사적 학살을 겪고도 여전히 복음 없이 자신들의 고집만을 내세워 전 세계의 문제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미가’라는 선지자를 부르셨다. ‘미가(미가아후)’라는 이

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신은 없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다. 이것은 곧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믿음’을 의미한다.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 이념과 정치 더 나아가 세계의 수많은 갈등과 전쟁 문제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이 개입할수록 세상은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질 뿐이다. 오직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복음자진 자로서 이 시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참된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제 토요집회에서도 이 부분이 여러 번 강조되었다. 세상에는 단순히 구원만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결국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살인을 선택하고, 불법을 저지르며, 교회에 피해를 주고 목회자에게 대항하는 자가 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척할지 몰라도 그러한 악행은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영혼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것과 참된 복음을 아는 것은 또 다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명확히 설명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확연히 구별된다. 우상숭배와 세상의 문제, 개인의 모든 고통이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했음을 깨닫고,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절감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평소에는 복음을 다 아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을 당할 때면 가끔 주님을 찾거나 자신에게 이익, 자리, 이권, 자존심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삶의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에 빠져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영적 상태로는 결코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오직 집중하여 기도함으로 그 문제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이 기도를 아는 사람이고 전도와 선교를 아는 제자이다. “하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왜 내게 왔습니까?”라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열드리 기도도 답을 얻어내는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집중하여 믿을 얻고 나면, 그제야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군요.”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보인다. 나아가 하나님은 미래를 함께할 사람과 팀을 만드시 준비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미래는 결코 혼자 갈 수 없기에, 복음 안에서 팀을 이룰 때 앞으로의 길이 선명하게 보인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만능과 친구관계도 복음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타락한 술친구, 불신앙의 친구들을 여전히 끌어내지 못하고 어울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영적 상태가 여전히 불신자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우리는 이처럼 완전히 거듭나서 세계복음화를 이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계복음화에 대한 지상명령을 마지막으로 남기셨기 때문이다. 인생의 여러 가지 진짜 문제를 속에서 오직 기도로 해답과 응답을 얻어내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만남의 팀까지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굳게 믿기 바란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라. 나는 진정 참사랑교회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인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마귀에게 짓눌려 평행해 가는 영혼들을 살릴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된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이 문제, 저 문제의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 미가서가 말하는 궁극적인 결론은 결국 내 인생이 ‘오직 예수’,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남기신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제자를 삼으라(마28:18-20, 행1:8)”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오직 그리스도’이다. 영혼구원과 선교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속으로는 오직 내 남편, 내 자식, 내 손자, 내 돈, 우리 가정, 내 사업,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만 집착하고 몰두한다면 결국 그 육신적인 탐욕 때문에 앞서 말한 사건들처럼 살인과 불법을 저지르며 멸망의 길,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영적인 사실을 경고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헛된 세상의 조건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굳게 선택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의 죄문제와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구원자, 운명과 사주팔자와 지옥의 불신자상태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수많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른 인간마저도 치유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오직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오직 예수’로 온전한 결론이 난 사람들은 이제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영적인 문제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철저히 치유해 나가야 한다.

1. 불신자상태 6가지

우리가 불신자상태 여섯 가지가 무엇인가? 불신자 여섯 가지가 근본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 지옥문제, 후대문제이다

1) 근본 문제(마귀의 자녀) 원죄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불신앙자마자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셨다. 구약성경을 보면 세상의 어떤 책에도 없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 왜 그토록 많이 있는가? 인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약의 인물들은 모두 전짜가 아닌 그림자였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바란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즉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2) 영적 문제(우상숭배)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불신자상태의 두 번째 단계인 영적 문제가 있다. 영적 문제란, 사탄에게 아주 심하게 붙잡힌 상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서 영적 문제가 없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마귀에게 속아 심하게 끌려 다니는 영적 문제가 존재한다. 왜 그런가?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시로 내 마음의 왕좌에 나 자신이 올라서기 때문에 그 순간 사탄이 틈을 타고 역사하는 것이다. 영적 문제가 심하게 걸리면 드러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 무속, 점술에 빠져 귀신이 들리거나 신접하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얽매인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큰 착각 중 하나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영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마귀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매순간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어 한다.

3) 정신문제 마음, 생각, 정신) 세 번째 불신자상태는 정신문제이다. 우울증, 공포, 불안증 등 수없이 많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중독에 빠지게 된다. 마음, 생각, 성격, 인격이 무너지는 이런 문제들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음을 믿기 바란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살전5:16),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벧전5:7)"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생각의 초점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누가 내게 섭섭하게 했다, 상처를 줬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했다"며 과거의 상처를 파고든다. 그러면 계속 우울증에 갇혀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진짜 참된 성공자는 과거의 모든 상처를 발판으로 삼는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당연, 필연, 절대'의 말씀을 찾아 300% 집중한다. 그때 비로소 밝은 미래의 희망이 보이게 된다. 우리가 지금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예비해 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은 '기도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 삶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직 기도에 집중하여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응답과 해답을 얻을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면 된다.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거나 왈가왈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란다. 그게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4) 육신문제 네 번째 불신자상태는 육신문제이다. 경제문제, 건강문제, 사업문제, 가정문제 등이 어찌다 한 번이 아니라 대대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심각한 불신자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본래 에덴동산에서 우리가 풍요로운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나 불신종과 불신앙으로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이 오지 않는 것이다. 오직 복음으로 이 모든 육신의 저주를 완전히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5) 지옥문제(내세문제) 다섯 번째 불신자상태는 지옥문제, 즉 내세문제이다.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지옥처럼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진자 지옥에 가게 된다. 이 얼마나 우울하고 비참한 일인가.

6) 후대문제 여섯 번째 불신자상태는 후대문제이다. 해로 대왕의 악행은 4대 왕까지 대물림되었다. 자기가 친아들을 죽였고, 그 후손은 별레에 먹혀 죽거나 또 다른 친족을 죽이는 참극을 벌였다. 나중에 사도 바울을 재판하여 로마로 보낸 것도 바로 이 악한 해로 가문이었다. 해로 대왕 한 사람의 권력욕과 불신앙 때문에 3, 4대 후손까지 끔찍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영적 대물림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가문의 저주를 온전히 끊어버림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한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의 가문에 장점도 있었지만 치명적인 단점과 심각한 영적 문제점이 분명히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그것을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여러분은 새로운 복의 근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원한다. 가문의 상처를 그대로 붙잡고 있지 마라. "부모님이 저렇게 사셨으니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아무리 굳게 다짐해도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부모와 똑같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불신자상태는 이처럼 무서운 후대문제까지 고스란히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불신자상태 6가지이다.

2. 하나님의 완전치유와 복음의 말씀

그렇다면 개인, 가정, 가문, 국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전 세계에 만연한 이 심각한 불신자상태의 문제를 어떻게 완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 미가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1) 임마누엘과 원니스 첫째, 미가서에 약속된 치유의 방법은 '임마누엘과 원니스(Oneness)'이다. 미가서 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 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 떼 같이 하리라"라고 약속하셨다. 남은 자들이 예배와 기도의 한 처소에 모여 원니스를 이룰 때, 비로소 순례자와 정복자의 위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남은 자를 모으신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내 힘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게 된 것도, 세계 램네티드화나 각종 훈련과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바란다. 억지로 끌려온 것 같아도, 갈등하다 늦게 왔어도 하나님이 복음 깨달은 '남은' 자들을 친히 불러 모아 주신 것이다.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만들려면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 '아,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생생히 체험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언약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2)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둘째, 치유의 말씀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다. 미가서 4장 5절은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라고 선포한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사람에게서 비굴하게 기부할 필요도 없고 교만한 이유도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로 살아가면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리저리 사람을 쫓아다니며 아무하고, 불만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모습이다. 오히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진짜 믿을 있는 사람을 더 잘 알아본다. 불신자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한다. 작은 불신앙조차 품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 버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언약의 여정,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3) 삼심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탄생 미가서 5장 2절은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심을 밝히고 있다. 미가 선지자가 극심한 시대의 아픔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해답의 언약을 주셨다. 우리의 결론도 이와 같아야 한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세계에 증거하려고 할 때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구나"라는 해답을 얻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면 그 안에 만민의 축복, 경제, 사업, 일, 그리고 미래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다 보인다는 사실이다.

4) 평강의 왕 그리스도 넷째, 미가서가 주시는 참된 치유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강과 승리를 가져다주시는 '평강의 왕'이시며,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대장 예수'라는 것이다. 미가서 5장 5절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지난번에도 참된 성공자에 대해 말씀드렸다. 세상의 돈, 권력, 명예를 다 가졌어도 내면에 불안과 우울증이 있다면 그는 결코 성공자가 아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육신에 질병이 있으며 가정에 문제가 많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shalom)이 있다면 그가 진짜 성공자이다. 이 평강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미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 언약을 내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내 자신, 자녀에 대한 염려, 교회, 직장, 사업, 나라에 대한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이 "너 잘 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걱정이 필요한가.

5) 원수 마귀를 이기는 권세 다섯째, 치유의 말씀은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다. 미가서 5장 9절은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이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다. 현장에서 이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로 흑암을 쫓으라. 그것이 바로 타락방이고, 지교회이며 미션홀이다. 불신앙에 빠져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무기를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깊은 호흡을 통해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6)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 여섯째, 미가서는 '세상을 치유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미가서 6장 8절 "오직 정의를 행하며"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정도는 대중 넘어가도 되겠다"라며 불법을 타협하면 결국 그것이 쌓이고 쌓여 인생에 치명적인 폭탄으로 돌아온다. 사업업은 어떤 일이든 항상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행해야 한다. 물론 성실하게 법을 지키려 해도 뜻하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다.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 더 바른길을 배우고 깨닫게 하신다. 법을 잘 지키고 사회의 정의로운 모델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치유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불법한 기준이 있다. 불법인 마약은 당연히 손대지 말아야 하며, 알코올 중독 역시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복지현장에서 경험해 본 결과, 가정파탄과 온갖 폭력범죄의 90%가 바로 술(알코올중독) 때문이었다. 인류의 가장 악한 죄의 시작을 꼽으려면 단연코 술이다. 술로 인해 교통사고, 폭력, 가정이 깨지는 비극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술을 마신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함"이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결순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과 불신자상태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비밀이다.

7)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일곱 번째로, 마지막 치유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처럼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결론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 미가 선지자는 7장 2절부터 당시의 심각한 불신자상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7장 2절을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고 탄식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죄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동업을 하면 다 망한다는 말이 있듯, 각기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인간이 특별히 더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토록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7장 3절에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라고 했다. 오늘날 판사나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최고직도층들이 오히려 오랫동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지 않는가. 이 세상에 온존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라도 그 권력의 자리에 가면 똑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서로 아합하고 결탁하여 악한 백성들을 착취한다. 7장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자기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쫓겨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7장 5절은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마며 친구를 의지하지 마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이것은 내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다. 이웃과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을 온전한 믿음과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실망하고 미워하게 될 뻔하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축원한다.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이다" 사람 앞에서는 철저히 입의 문을 지켜야 한다. 7장 6절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라고 말씀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족속처럼 살아가는 이 절망적인 불신자상태의 세상 속에서 자신이 붙잡아야 할 궁극적인 결론을 내린다. 7장 7절의 위대한 고백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리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라고 선포한다. 죄악과 사탄이 가득한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결론

어떠한 불신자상태와 심각한 영적 문제가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완전히 치유하고 살려내는 후대 램네티드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세상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현장을 정확하게 직시하여 세상과 사단에게 결코 속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완전한 복음으로 능히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나이다. 아멘"